

# CT 사진으로 암 진단하기



소프트웨어학부 진혜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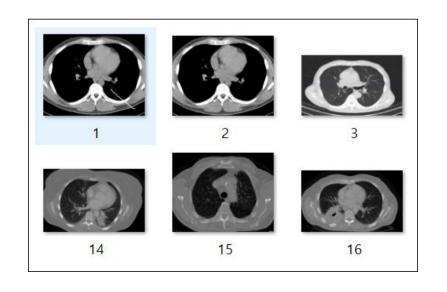


#### Classification

- ■보기가 주어져 있는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것과 비슷하다.
- ■보기가 정해져 있는 예측들은 모두 분류이다.
- •데이터를 특정 보기(범주)로 분류하는 것으로, 새로운 데이터가 어떤 범 주에 속할지 예측할 수 있는 기법이다.
- ■경영활동에서의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의학, 법률 등 여러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.
  - 회사에서 이직할 직원을 미리 예측해볼 수도 있고, CT 사진을 통해 암 질환 여부 나아가 암 질환 종류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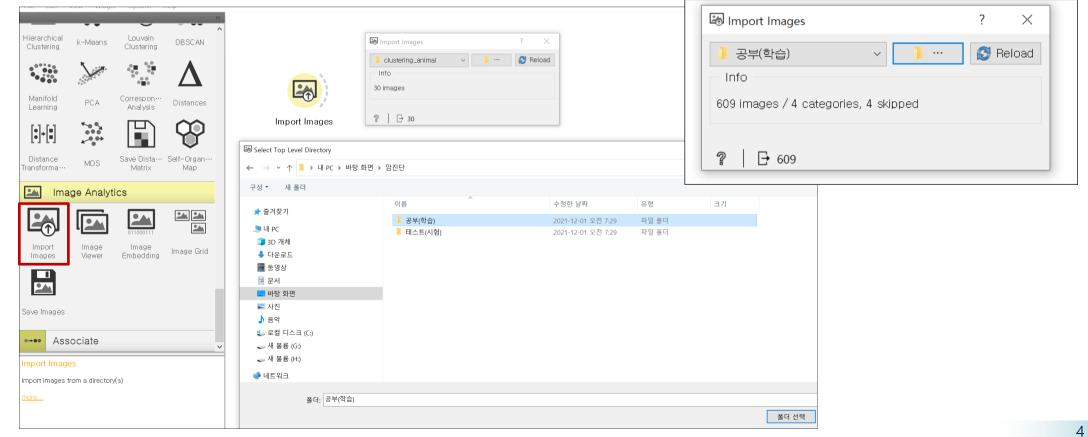
- CT 사진 중에는 암 환자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.
- 이런 사진을 구분 할 때도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다.
- 인공지능에게 CT사진(문제)들을 보여주고, 각 사진 별로 암 질환 여부 및 종류(정답)을 알려주면서 학습(공부)시키는 것이다.
- 인공지능은 의학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, 그냥 그림만으로도 암인지 아닌지, 암이라면 어떤 암인지 등을 예측하기 시작한다.



## 진단하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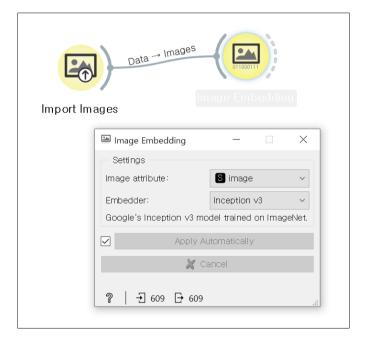
- 데이터 셋 다운로드
  - 암 진단 압축파일 다운받아서 바탕화면에 풀기
  - Image Analytics 메뉴에서 Import Image 선택
  -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(CT사진)를 불러온다. 일단 학습을 시켜야 하므로, 공부(학습)을 선택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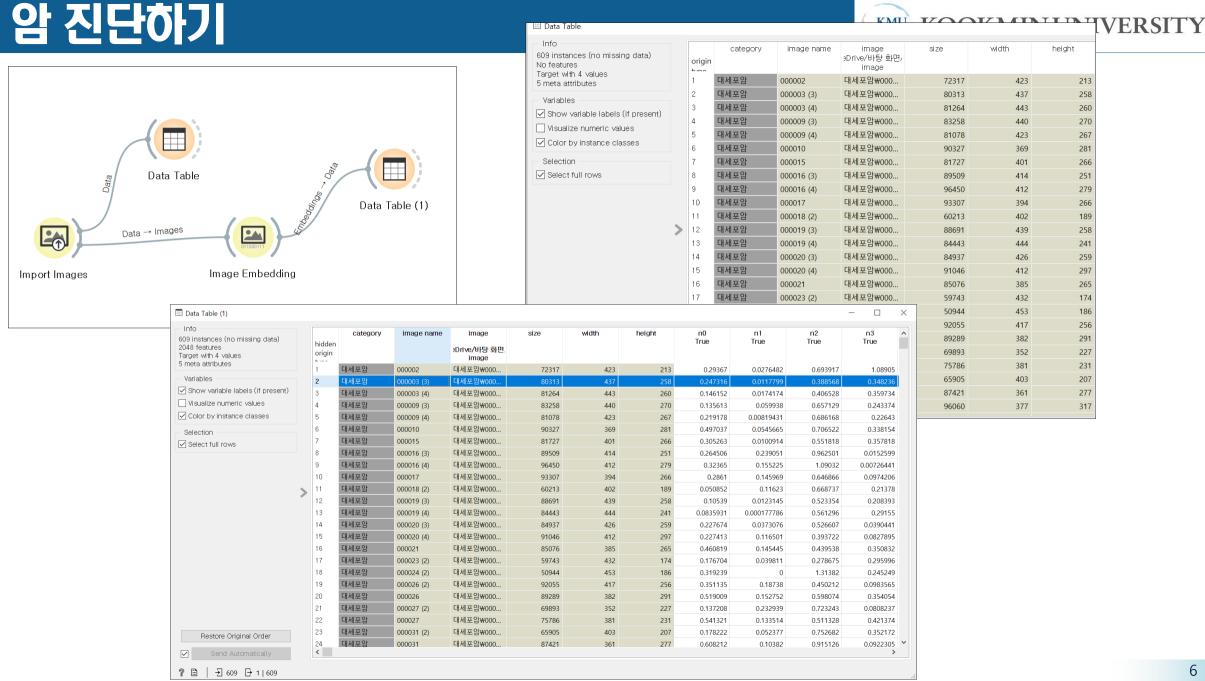




- 객관식 예측 분류 분석의 경우, 인공지능을 공부시킬 때 이름표(정답)을 달아줘야 하는데, 오렌지에서는 이미지 분류의 경우 폴더 명을 이름표로 인식한다.
  - 정답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고, 그 안에 해당 이미지를 집어넣으면, 그 이미지들은 모두 그 이름표가 붙은 것으로 알아듣는다.
  - -임베딩
    - 이미지는 바로 읽을 수가 없어서,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.
  - ■구글의 Inception v3라는 우수한 모델이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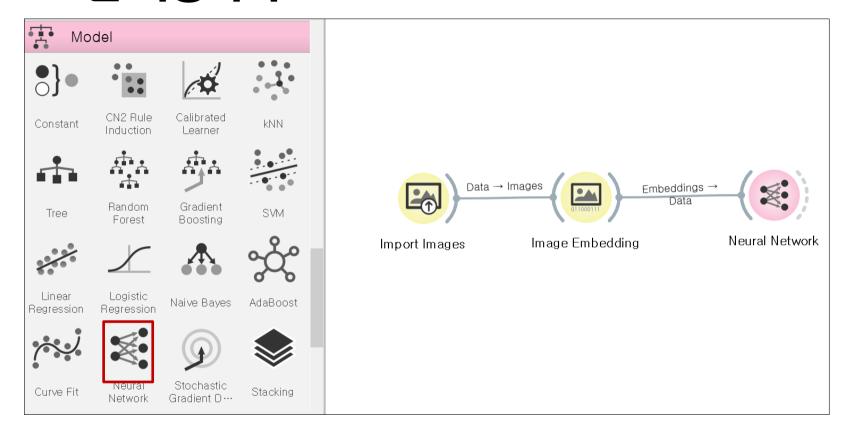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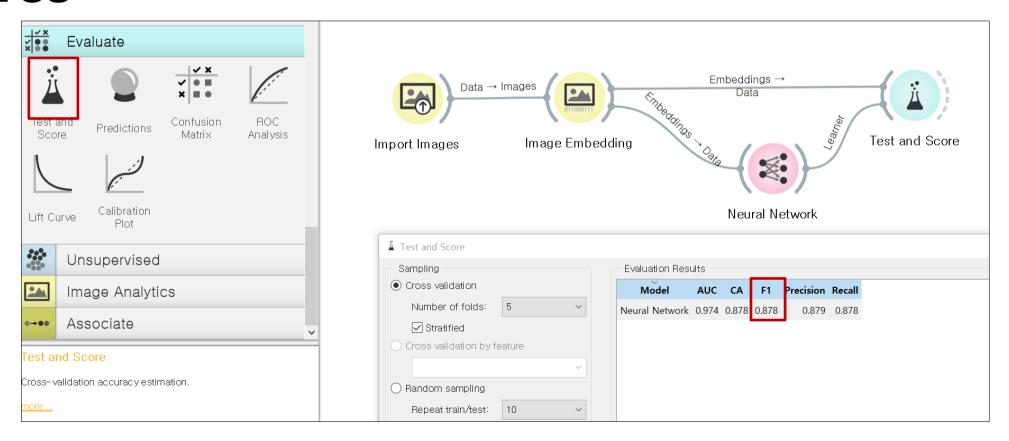


#### ■모델 사용하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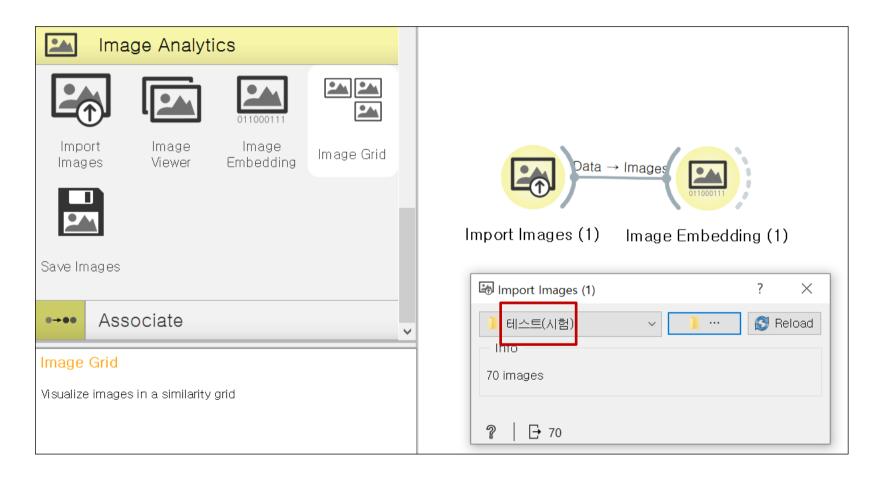


- Test and Score
  - 인공지능 모델들이 열심히 계산하고 공부한다. 계산이 끝나면 Test and Score를 더블 클릭해 보자.
- 학습 성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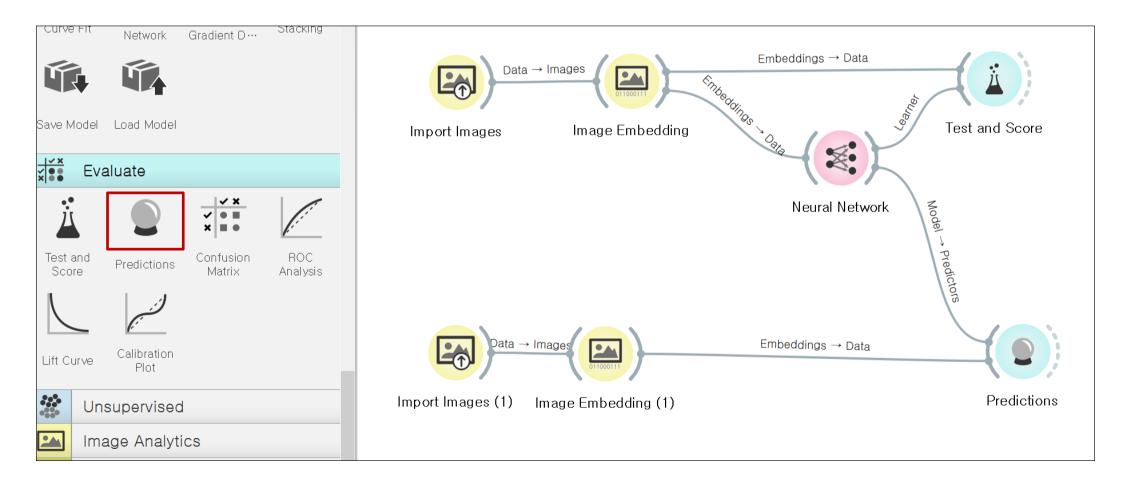


#### ■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켰으니 실전 예측을 해보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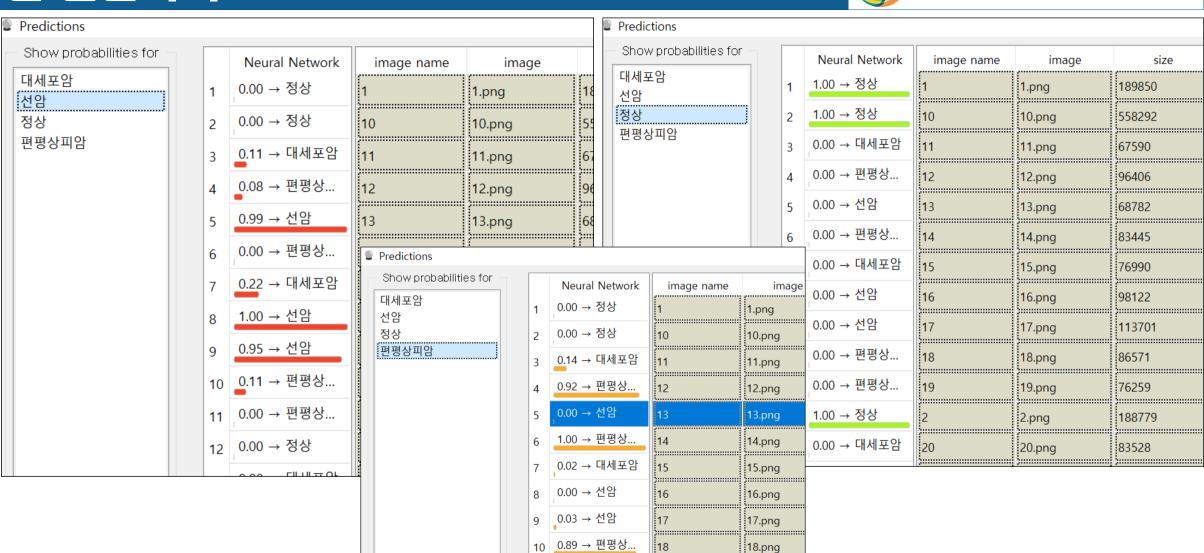




- Predictions을 불러와 변환된 데이터와 앞서 공부시킨 모델로 연결시킨다.
- 계산이 끝나면 Predictions을 더블 클릭해 예측 값을 확인할 수 있다.







11 1.00 → 편평상...

19.png